한-케냐 인프라협력센터

주간 건설 · 인프라 동향 보고 (5월 3~4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케냐 주요 경제 동향

○ 주요 경제 지표

	해당년/월/주/일	전년/월/주/일	참고시점
환율(1USD)	129	129	2025.05
인플레이션(%)	4.1	3.5	2025.4월
CPI(points)	144	144	2025.4월
정부부채비율(% of GDP)	70.1	66.7	2023년

출처:trading economics

○ 2025년 케냐 성장률 전망을 기존 5.6%에서 5.0%로 하향¹⁾

- 경제 전문가들은 2025년 케냐 성장률 전망을 기존 5.6%에서 5.0%로 하향. 이는 2024 재정법안(Finance Bill 2024) 철회와 대규모 시위로 인한 정치 불안, 정부 지출 축소의 여파로 분석됨.
- 주요 하향 요인으로 공공투자 감소,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 생산 차질, 높은 부채 상환 비용으로 추정
-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재정 불확실성과 사회 불안정이 민간 투자 및 전반적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.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재정 안정화와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, 케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○ 케냐 재무부, 재정 압박 해소 위해 KES 1.72조 지출 축소안 발표²⁾

- 재무장관 John Mbadi, 국가 부채 부담 완화 및 재정 안정 확보를 위해 KES 1.72조로 공공지출 축소하는 포괄적 긴축 계획을 발표.

1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global-economists-slash-kenya-s-growth-outlook-5028300>

2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mbadi-plans-spending-cuts-in-public-offices-to-sh1-72trn-5029746>

- 공공기관 대규모 구조조정 추진: 42개의 국영기관 -> 20개로 통합, 9개는 해산, 6개는 전면 구조조정함으로 KES 600억 절감 예상
- 비주요 지출 축소 및 자구 노력 강화: 출장비, 연수비, 자문료 등 불필요한 예산 최소화함으로 공공기관 내부 예산 절약 유도
- 하지만 이런 조치에 대해 공무원 노조 및 공공부문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일자리 축소 및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○ 케냐 고용시장, 5년 만에 최저 수준 기록³⁾

- 지난해 케냐는 신규 일자리 78만2,300개를 창출, 전년도(84만8,100개) 대비 감소하며 2019년 이후 최저치 기록. 이는 GDP 성장률이 2021년 7.6%에서 2024년 4.8%로 둔화된 것과 연관됨.
- 제조업 타격 심각, 3곳 중 1곳 인력 감축: 제조업 부문은 판매 부진 및 운영비 증가로 인해 기업 3곳 중 1곳이 정규직 감축, 산업 전반에 고용 위축
- 민간기업, 15% 구조조정 계획...30만 명 실직 우려, 케냐 중앙은행 조사에 따르면, 민간 부문 기업들은 올해 인력의 최소 15% 감축을 계획, 이는 30만 명 이상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.
- 추가로 조세 부담 증가, 금융 시장 긴축으로 인해 기업의 운영 지속성 악화, 가계의 대출 접근성 저하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고용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.

○ 케냐 정부, 2025/26 회계연도 예산에서 IMF 지원 제외⁴⁾

- IMF는 2025년 3월, USD 36억 규모 지원 조기 종료, 이는 USD 27억 규모 세금 인상안 철회를 초래한 전국적 시위 이후 결정됨.
- 또한 케냐 정부가 전년도 5.1%에서 GDP 대비 4.5%로 재정적자 축소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공공지출 절감 및 국가 부채 위험 완화를 위한 긴축 재정에 들어감.

3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kenya-jobs-data-hits-5-year-low-on-sluggish-economy-5031208>

4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kenya-avoids-imf-with-zero-loans-in-new-budget-5037502>

- IMF, 케냐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지출 구조 재조정 필요성을 시사했으나, 현재까지 케냐 정부는 새로운 IMF 지원 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.

○ 케냐- 2027년 제조업 GDP 비중 15% 목표⁵⁾

- 케냐 정부는 나이로비 전역에서 산업 실태조사 개시, 제조업 현대화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지원을 목표로 함.
- 조사는 투자·무역·산업부, 케냐 국가통계청(KNBS), 케냐 산업청(KIE) 공동 수행
- 조사 범위 및 활용 목적: 나이로비 147개 서브카운티 전 지역 대상으로 투자유치 촉진, 인프라 계획, 제조업 구조 고도화에 활용 수도권 지역인 키암부(Kiambu) 등도 중요한 산업 중심지로 함께 주목됨.
- 2027년까지 15%, 2030년까지 20% 도달 목표로 본 계획 핵심 정책 기반 역할을 할 전망.

2 PPP 관련 동향

○ 나이로비-몸바사 고속도로 통행료 공개⁶⁾

- 케냐 정부는 차종 및 주행 거리에 따라 통행료를 KES 500에서 KES 1,800까지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.
- 총연장 482km, 이동시간 10시간 → 4시간 단축 기대
- 본 프로젝트는 PPP로 추진되며, 민간 투자자가 건설·운영·유지보수를 맡고, 통행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 회수하는 구조.
- 고속도로 개통으로 무역 효율성 향상, 차량 운용 비용 절감, 연선 지역의 경제 성장 촉진 효과가 기대됨.

○ 케냐전력청-KIRDI, 전기차 배터리 국산화 추진⁷⁾

- 케냐 정부는 기후 회복력, 디지털 기술, 민간투자 확대를 핵심 축으로 수자원·위생(WASH) 부문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 중.

5) <https://www.capitalfm.co.ke/business/2025/05/state-begins-nairobis-industrial-mapping-to-boost-economic-planning/>

6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toll-charges-for-nairobi-mombasa-expressway-revealed-5029788>

7) <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business/financial-standard/article/201518208/kenya-power-state-research-firm-eye-battery-manufacturing-plant>

- 2025 국제 컨퍼런스로 정책·기술·투자 해법 모색 예정된 *2025 Kenya Water and Sanit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hibition (KWASICE)' 에서 혁신적 금융모델 신기술 도입,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가 주요 논의 의제.
- Water Act 2016 기반 개혁 + National Water and Sanitation Investment and Financing Plan (NAWASIP) 추진함으로 KES 9,950억 대규모 투자를 2030년까지 유치할 계획.
- 정부는 PPP, 블렌디드 파이낸싱, 녹색채권, 기후펀드 등을 활용해 수자원 인프라 재정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도모 중.

○ 케냐 정부, 프랑스 기업에 KES 60억 보상 예정⁸⁾

- 케냐 정부, Mau Summit 유료도로 PPP 사업 취소에 따라, 프랑계 Vinci Highways SAS 및 Meridian Infrastructure Africa Fund에 약 KES 60억 보상 예정. 이 금액은 F/S, 설계 등 개발 초기 단계 비용에 대한 보상.
- 233km 프로젝트, 재정 조건·통행료 이견으로 무산, PPP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, 재정 조건과 통행료 책정에 대한 합의 실패로 계약 해지.
- 이번 계약 해지로 인해 케냐 정부의 PPP 이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으며, 향후 인프라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- 현재 케냐 정부는 이 핵심 구간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 중.

○ 말레이시아, 아프리카 팜오일 본부 케냐로 이전⁹⁾

- 말레이시아는 팜오일 아프리카지역 본부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케냐 나이로비로 이전, 이를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상 채수출·유통 중심지로 나이로비를 육성할 계획
- 케냐의 연간 정제 능력은 210만 톤 중 약 40%만 가동 중이며, 말레이시아는 정제 능력 확대와 투자 유치를 지원할 방침.

8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kenya-to-pay-french-firms-sh6bn-for-batched-mau-summit-toll-road-deal-5032576>

9) [Malaysia to move palm oil buisness head office to Nairobi](#)

- 씨앗 공급, 기술 이전, 합작 벤처 설립 등을 통해 케냐 내수용 팜오일 생산을 활성화. 특히 호수 및 해안 지역이 유력 대상지.
- 몸바사 산업단지(Mombasa Industrial Park) 내 팜오일 가공 허브 조성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, 이는 지역 내 고용 창출, 부가가치 생산, 이웃국가로의 재수출 기반 역할을 할 전망.

○ 걸프 에너지 계약 지연으로 케냐 석유개발사업 차질¹⁰⁾

- 케냐의 석유개발 프로젝트가 걸프 에너지와의 신규 계약 체결 이후 일정 및 재정 구조 재조정에 들어가며 지연 사태 발생.
- 프로젝트 실행에 불확실성 증가, 투자자 및 정책결정자들의 우려 고조, 사업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 진행 중.
- 이번 지연은 국내 석유 생산을 통한 에너지 자립 달성, 경제 성장 기반 확충 계획에 타격을 줄 가능성 있음.
- 이해관계자들은 걸프 에너지 계약의 구체적 영향과 전반적인 사업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음.

3 인프라 정책 및 동향

○ 케냐, 지방정부 중심 스마트시티 개발 법안 발의¹¹⁾

- 케냐 정부, 지방정부(카운티)가 독자적으로 스마트시티를 계획·개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신법안을 발의하며 기술 기반 도시계획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촉진
- 법안 주요 내용: 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, 데이터 관리 체계 정립, PPP 촉진 구조를 포함해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- 본 법안은 각 카운티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도시 혁신을 독려하고, 서비스 효율성 향상, 경제 성장 촉진, 시민 삶의 질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됨.

10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corporate/industry/oil-project-faces-fresh-delays-after-gulf-energy-deal-5040204>

11)

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counties-to-develop-smart-cities-in-new-bill-5028306>

○ SGR 나이바샤-말라바 연장에 KES 160억 배정¹²⁾

- 케냐 재무부는 2025/26 회계연도 예산에서 KES 160억을 나이바샤-키수무-말라바 구간 표준궤 철도(SGR) 연장 사업에 배정.
- 우간다의 말라바-캄팔라 노선과 연계되는 동아프리카 물류 핵심축으로, 양국 간 철도망 통합의 기반이 될 전략적 프로젝트로 평가.
- 케냐는 이를 통해 동아프리카 공동체(EAC) 내 무역 촉진 및 물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며, 운송비용 절감, 물류 연결성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외국인직접투자(Foreign Direct Investment FDI) 유치 효과 기대.

-

○ 케냐, 에티오피아 - 우간다로부터 전력 수입 확대¹³⁾

- 케냐는 2022년 11월부터 에티오피아로부터 200MW 규모의 수력 전력을 수입 중, 이는 케냐 일일 전력 소비량의 약 11%에 해당함.
- Sodo-Moyale-Suswa 고전압 직류(HVDC) 500kV 송전선을 통해 에티오피아, Bujagali-Tororo-Lessos 고압 송전선을 통해 우간다와 케냐 간 전력망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.
- EAPP 기반 역내 전력 공동체 구축
- 양 연결망은 Eastern Africa Power Pool (EAPP)의 일환으로, 총 11개국이 참여해 전력망 상호 연결 및 교역 활성화를 추진 중.
- 이는 케냐 정부가 국내 발전보다 저렴한 수입 전력 활용을 통해 전력 비용 절감, 공급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 전략의 일환

○ 케냐 2025/26 예산, 도로 인프라에 중점으로 배정 ¹⁴⁾

- 케냐 정부는 2025/26 예산안에서 도로 인프라 부문을 핵심 우선순위로 지정, 에너지·인프라·ICT 통합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에 투입
- 본 투자는 운송 네트워크 개선을 통해 지역 간 연결성 강화, 물류

12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kenya-uganda-sgr-line-closer-as-treasury-allocates-sh16-billion-5029696>

13) <https://www.theeastafrican.co.ke/tea/business-tech/why-kenya-depends-on-ethiopia-uganda-for-power-5031792>

14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05-09-roads-get-lions-share-in-budget-survey-reports>

효율성 제고 및 민간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 유도를 목표로. 농촌 및 도시 간 이동 격차 완화 산업지대 접근성 개선, 전국적 경제활동의 균형 발전 촉진

- 이번 예산 배분은 ‘인프라를 통한 경제변환’이라는 행정부의 전략 방향에 부합하며, 무역 촉진·국내 이동성 향상·근대화된 국토 구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작용.

○ 케냐 정부 중국 운영사에서 SGR 운영권 이관 준비¹⁵⁾

- 케냐 정부는 2025/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KES 48억을 표준궤 철도(SGR) 운영 전환 지원금으로 책정.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중국계 철도운영사(Africa Star Railway Operation Company)로부터 케냐 철도청(Kenya Railways)으로 운영권을 이양하기 위한 준비.
- 배정 예산은 유지보수·직원 급여 등 운영비용 충당에 활용돼, 서비스 중단 없는 안정적 인수 및 운영 효율성 유지를 목표로 함.
- 이번 조치는 외국인 운영 의존도를 줄이고, 현지 기술 역량 강화 및 철도 자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전략과 일치.
- SGR 운영권 인수는 케냐가 자국 교통 인프라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, 철도 운송 서비스의 재정 자립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발판으로 평가됨.

○ 케냐 정부, 5월 27일까지 2025년 재정법안 국민 의견 접수¹⁶⁾

- 국회 재정위원회는 2025년 재정법안(Finance Bill 2025)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, 개인 및 기관의 서면 의견을 5월 27일까지 접수 중임
- 신규 세율 도입 없음에도 불구하고, 일부 품목을 ‘제로세율(0% VAT)’에서 ‘면세(VAT Exempt)’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VAT 환급 불가, 소비자 가격 상승 가능성 우려됨.
- 국회예산국(PBO)에 따르면, 이번 조치는 VAT 환급 남용 방지 및

15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sgr-allocated-sh4-8bn-ahead-of-takeover-by-kenya-railways-5037378>

16) <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national/article/2001518948/public-participation-on-finance-bill-begins>

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, KES 1,750억의 추가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함.

- 케냐 국세청(Kenya Revenue Authority-KRA)의 민간기업 데이터 접근 범위 확대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, 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및 과도한 행정권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- 2024년 재정법안이 대규모 시위로 철회된 전례와 달리, 2025년 법안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정치 저항 예상. 그러나 생활비 인상 및 기업 비용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여전히 상당함.

④ 정치 동향

○ 케냐, 2035년까지 온실가스 35% 감축 목표¹⁷⁾

- 케냐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(UNFCCC)에 제2차 국가적기여(NDCs)를 제출하며,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5.25백만 톤(35%)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
- 계획은 기후변화에 강한 지속가능 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내세우며, 적응 전략, 손실·피해 보상 재정 메커니즘, 포용적 기후 행동 등을 포함.
- 총 필요 자원 560억 달러 중 20%는 국내 자원, 나머지 80%는 국제기후재원, 기술이전, 역량강화, 탄소시장 참여 등을 통해 조달 계획.
- 이번 NDC는 단순 감축 목표를 넘어서 주요 산업의 녹색전환,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한 개발, 포용적 경제성장 촉진을 유도하는 전환적 기후 로드맵으로 자리매김.

○ 루토 대통령, 2027년 총선 전 공약 이행 강조¹⁸⁾

- 케냐 루토 대통령은 2027년 총선을 앞두고 대선 공약 이행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, 미이행 약속에 대한 비판에 직접 대응.
- 나록 카운티(Narok County) 순방 중 현지 상인 지원을 위한 수스와(Suswa) 현대식 시장 개소식에 참석하여 여성 상인 위한 KES 250만 지원 약속
-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들에

17) <https://www.capitalfm.co.ke/business/2025/05/govt-files-climate-plan-with-un-aiming-to-slash-emissions-by-35pc/>

18) <https://www.standardmedia.co.ke/politics/article/2001518230/ruto-i-will-deliver-on-promises-before-2027>

대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 청년 대상 자금 회수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.

○ 케냐 정부, 중국 투자 옹호¹⁹⁾

- 케냐 정부는 인프라·관광 등 핵심 분야에 중국 민간기업이 진입하는 것에 대한 국내 여론의 외국 자본 집중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
- 정부 대변인 Isaac Mwaura는 케냐의 100% 외국인 지분 허용은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며, 현지화는 케냐인 고용·현지 자재 조달·하청 계약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.
- Anhui Jiubao 전자기술사는 교통통제 장비 제조에 투자, 수입 대체 및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, 중국 Hunan Conference Exhibition Group의 KES 297억 규모 고급 호텔 프로젝트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숙박 인프라 부족 해소와 부합.
- 정부는 일부 시민단체의 ‘채무 함정 외교(debt-trap diplomacy)’ 우려에 대해 이번 투자들은 국가 대출이 아닌 민간 시장 기반 투자임을 명확히 표명.

○ 루토 대통령, 2024/25 예산 1,770억 KES 감축²⁰⁾

- 루토 대통령, 2024/25 회계연도 국가예산을 1,770억 KES 축소, GDP 대비 재정적자를 4.5% 이내로 억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됨.
- 정부 긴축조치 주요 내용: 기능 중복 47개 국영기관 폐지, 차량 구매 및 해외출장 등 비핵심 지출 동결. T대통령실 포함, 전 부처의 비공개(기밀) 예산 전면 폐지
- 예산 삭감은 에너지, 도로, 교육 등 핵심 개발 부문에 집중, 주요 인프라 사업 중단 또는 지연 가능성 제기됨.
- 이번 긴축은 전국적인 청년 주도 세금 인상 반대 시위로 인해 2024 재정법안(Finance Bill 2024) 철회 이후 단행된 조치로 예상

19) <https://www.capitalfm.co.ke/business/2025/05/govt-defends-entry-of-chinese-investors-into-key-sectors-amid-concerns/>

20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realtime/2025-04-30-ruto-chops-billions-off-2025-budget>

□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

① 일반 프로젝트 동향

① Menengai Geothermal Project²¹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Geothermal Development Company (GDC)
- (도 급 사) Sosian Energy, Globeleq, Orpower Twenty-Two
- (사 업 비) Menengai II USD 117 million, Menegai III USD 79.15 million
- (편 당) African Development Bank (AfDB), Trade and Development Bank (TDB), Finnfund.
- (사업내용)
 - 지열발전단지 기반 인프라 구축: 도로망 50km, 급수망 30km, 증기 수집 시스템 25.5km, 캠프 지역 조성 총 13개 지열정에서 공급되는 증기를 통해 시간당 1,200톤의 증기를 이동할 수 있는 집결 시스템을 구축.
 - 케냐전력송전공사(KETRACO)는 전력 변전소와 나쿠루 산업지역 내 소일로(Soilo) 변전소로 전력 송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 전력 공급 향상, 산업단지 개발 가속화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.
- (추진현황)
 - 2023년 8월: Menengai I (Sosian Energy)운영 개시, 공급 용량: 35MW, 국가 전력망에 공급 시작.
 - 2023년 6월: Menengai II (Globeleq) 공사 시작, 예정 준공 2025년
 - 2024년 10월 24일 Menengai III (OrPower Twenty-Two) 착공식 공식 건설 개시, 지열 발전소 3단계 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주목.

② 협력센터 운영 보고

- 해당사항 없음

21) <https://www.gdc.co.ke/menengai/>